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혼란의 계절'

엔데믹에 느슨해진 경계심...광주·전남 5주간 확진 8900여명 독감 환자도 덩달아 급증세...단순 감기라고 방치하면 큰 고생 진단키트 등 조기 검사 필요 속 지역민 마스크 착용도 부쩍 늘어

코로나19 엔데믹으로 경계가 느슨해진 틈에 코로나19가 확산하는데다 독감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호흡기 감염증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과 독감, 코로나19 등 멀티데믹(여러 감염병 동시 유행) 우려에 마스크를 찾는 시민들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최근 5주 동안 광주·전남에서만 8900여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는 지난 8월 31일을 기점으로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하향돼 독감

(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확산세는 여전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양성자 표본감시(527개 표본기관 감시) 결과 광주에서는 11월 5~11일 216명, 11월 12~18일 214명, 11월 19~25일 260명, 11월 26일~12월 2일 262명, 12월 3~9일 259명 등 5주 동안 400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남에서도 11월 5~11일 220명, 11월 12~18일 235명, 11월 19~25일 263명, 11월 26일~12월 2일

254명, 12월 3~9일 321명 등 5주 동안 49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계통 변이 바이러스가 주로 검출되고 있으며, 중증도와 위험도는 높아지지 않으나 전파력 및 면역회피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7.5도 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증상은 그대로이며 치명률은 3.4%(WHO, 3.5 기준)다. 독감환자도 덩달아 급증세다. 광주시 감염병관리지원단 통계에 따르면 광주시 47주차(11월 19~25일) 인플루엔자 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분율은 35.6명을 기록했다. 45주차(11월 5~11일) 17.3명, 46주차(11월 12~18일) 23.3명에 이어 매주 증가하는 추세다. 호흡기감염증이 급격히 확산하자 시민들은 다시

마스크를 찾고 있다. 김모(66)씨는 "코로나19가 소멸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호흡기 질병이 유행해 다시 마스크를 쓰고 있다"며 "요즘 감기만 걸려도 심하게 고생하는만큼 주위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단순 감기라고 생각해 방치하면 큰 고생을 하게 된다. 조기에 검사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병원 진단이 부담스러우면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해 진단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 9월 8일 발표된 이스라엘 연구에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접종한 집단과 코로나19 백신을 단독접종한 집단의 면역원성을 분석

한 결과, 두 백신을 동시 접종한 이들이 단독 접종한 이들에 비해 더 많은 항체를 생성했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0월 19일부터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11월 1일부터는 누구나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예방접종기간은 오는 2024년 3월 31일까지이며 XBB.1.5 단가백신(화이자, 모더나)이 접종된다. 김원영 우리들내과 원장은 "독감과 코로나19는 먹는 약도 다르고, 기저질환 및 기존 복용하던 약 종류에 따라 처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진찰을 받고 정확한 약을 먹어야 한다"며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으니 가장 효과적인 예방 수단인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사건 브로커' 관련 현직 치안감 피의자 신분 조사

사건 브로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현직 치안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전남 A치안감을 소환해 광주경찰청장 재임시절(2021년 7월~2022년 6월) 사건 브로커 성모(62)씨에게 인사청탁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 성씨는 수사무마 청탁을 대가로 다른 공범과 함께 가상자산 사기 사건 용의자로부터 고가 외제차 등 18억5400만원을 받아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6일 A 치안감을 입건하고 인사청탁과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입증하기 위해 A치안감 주거지와 A치안감이 근무했던 광주경찰청 사무

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달 광주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A치안감 재임 시절 경장·경감급 이하 승진 인사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한 A치안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복구) 작업 결과 등을 토대로 조만간 A치안감에 대한 신병처리에 나설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현직 간부경찰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번 신병처리 결과는 사건브로커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직장갑질 간부 처벌하라" 순천서 신협 직원들 촉구

'순천중앙신협 직장내 괴롭힘 갑질 비상대책 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4일 순천시 순천중앙신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들을 괴롭히고 갑질을 한 간부 A씨를 강력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A씨는 직원들에게 욕설과 고성, 폭언을 일삼고, 특정 여직원을 승진시키려며 현 이 사장을 협박하기도 했다"며 "직원의 예금 계좌를 임의로 조회해 해지를 강요했으며 사무실 CCTV 영상을 유출해 특정 직원에게 모욕감을 주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신협중앙회 감사에 이어 직원들이 여수지방노동청에 신고했으나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갑질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와 2차 피해 방지에 나서지 않은 이사장과 상임 감사의 안일한 태도에 문제"라고 지적했다. 광주일보는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고교 급식실 분쇄기에 "악" 조리사 손목 부위 절단 수술

여수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식재료 분쇄기를 사용하던 조리사가 왼손을 크게 다쳤다. 14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30분께 40대 여성 조리사 A씨가 음식재료 분쇄기를 사용하던 중 기계에 왼쪽 손이 말려들어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가 고무장갑을 낀 채 야채 분쇄작업을 하던 중 장갑 일부가 기계 안으로 들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에서 손목 부위 절단 수술을 받았다. 민주노동 전남지역본부 여수시지부는 급식실 등에서 위험한 분쇄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분쇄된 양념 등 완제품 구매를 전남도교육청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5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앞에서 급식실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봉사는 즐거워" 광주자원봉사자대회 14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광주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환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10일동안 몰랐다... 홀로 살던 70대 '고독사'

광주서 세입자 신고로 발견

가족, 이웃과 단절된 70대 남성이 숨진지 10여 일 만에 발견됐다. 14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께 광주시 북구 한 주택에서 A(70)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단독주택의 소유주로 2층은 세를 내놓고 1층에서 생활했다.

세입자 B씨는 "A씨에게 여러차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집에서도 인기척이 없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 감식결과 A씨는 숨진지 10여일 지난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자녀 2명이 있었지만 모두 타지역에서 거주하며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웃들은 A씨가 주민들과 교류가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A씨는 참전명예수당과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받고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대상자가 아니었다. A씨가 독거노인 관리대상 선정을 거부해 1인 가구 관리대상에서도 빠져있었다. 경찰은 부검 결과 A씨의 지병이 사망과 연관이 있고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할 방침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	----------------------------	--------------	-----------------------

대표번호 1644-7990